



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 산지천갤러리 걸린 이유

첫 미술전문인 양성교육 기획·홍보·비평 등 실습 수강생 32명 결과보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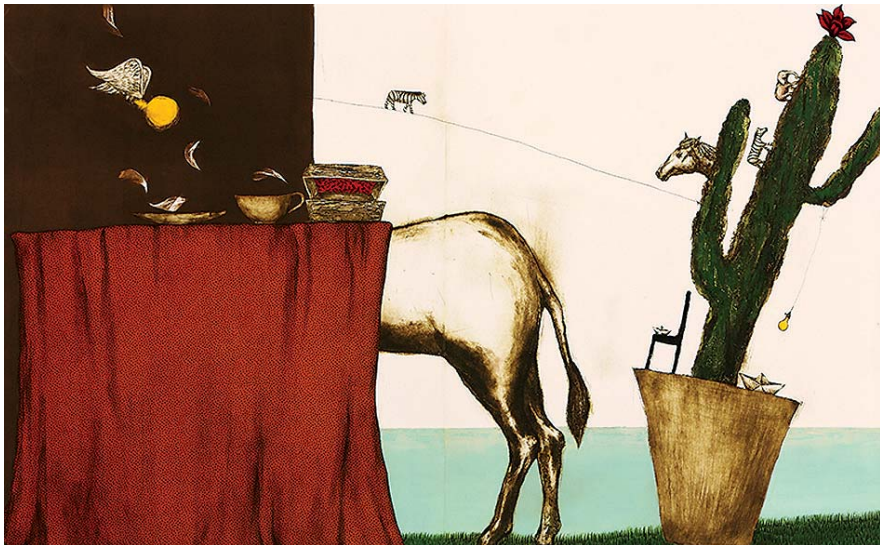
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이 산지천갤러리에 걸렸다. 미술전문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기획전을 위해 한라산과 가까운 제주시 신비의도로 변에 있던 작품이 바다와 이웃한 원도심 갤러리로 이동했다.

지난 15일부터 산지천갤러리 2~3층을 이용해 펼쳐놓은 소장품전에는 미술관이 보유한 평면 작품 40점이 나왔다. 이들 작품은 두 팀으로 나뉘어 수강생들이 공동 기획을 맡아 생명

을 이야기하는 '피고 지고', 판화를 재조명하는 '새기다, 찍는다, 같이 새기다'란 전시명으로 각기 묶였다. 수강생들은 이미지가 담긴 소장품 목록을 보며 이 땅의 슬한 생명들을 끌어냈다.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표된 판화 작품을 통해선 현대 판화의 실험성과 시대상을 살폈다.

도립미술관이 올해 처음 운영한 미술전문인 양성교육은 기획, 교육, 홍보, 비평 등 미술계 실무 전반에 걸친 실습을 하는 등 미술 분야 전문인을 길러내기 위해 기획됐다. 당초 100여 명이 몰렸을 만큼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보고전까지 참여한 수강생은 32명이었다.

이번 교육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2019미술전문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전에 나온 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 허문희의 '줄거은 상상'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학예인턴제도)과 연계한 사업으로 도내 문화예술 인력 배출과 청년 일자리 확충 기여를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결과보고전을 마치더라도 별도의 수강생 특전은 없다. 내년 교육 방향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다.

전시는 12월 11일까지. 이 기간 산지천갤러리 4층에서는 김수남 기증 사진전 '제주도의 신년예례: 송당 신과세제'가 열린다. 1층에서는 두번째 '공간잇기 프로젝트'로 강태환, 김성현, 김윤아, 민지혜, 이선구의 설치작품을 볼 수 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립한관

<179>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준네가 들으면, "ㅇ맹이야- 왜 물먹영 오라시냐?" ㅇ맹이 꼴았져, "누님 안직 안 갖수다. 왜막 지동에 꼴체 걸언 놔워신디야 아맹 좇아봐도 웃수다. 꼴체 ㅁ정 세 물 백이레 가사출긴다." 준네 꼴넌, "야게, 저디 강 좇아보라. 고펁 뒤티 가빈 망탱이 싯져. 그 뉘이 어디 싯겨여. 경혼디 후롱 스랑 봉황 이악인 어느제 들어보젠 후염시냐? 후롱이 맹근 놀렐 와랑차랑 볼르맹 큰큰흔 바위산을 맹글젠 죽은 바위달이 어떤 후염신지 들어보구정 혼디. 하르바님 신디 미리생이 꼴양 놔두라"

- * 제주어 풀이
 - *예: <이름>소 *안직(안직): <어찌> 아직.
 - *꼴체(꼴체): <이름>삼태기. 재료에 따라 '너렁-, 꼭-, 칩-, 대-, 줄-' 따위가 있음.
 - *ㅁ지다(ㅁ지다, ㅁ지다, ㅁ지다, 아지다, 아지다): <움직> 가지다, 소유하다, 지나다.
 - *왜 물먹이레: <소에게 물을 먹이려>
 - *고팡(팡, 께팡, 께팡, 노제기, 압팡, 장팡): <이름> 곡식 따위를 저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창고. *스랑: <이름> 사랑, '앓'.
 - *와랑차랑(와라차라, 와랑차랑, 알랑차랑): <어찌> 큰 규모로 힘차게 흥청거리며 흥겹게 진행되는 꼴. *미리생이(미릿, 미르세, 미리생이): <어찌> 미리.
 - *꼴양놔두라: 말해두거라.

*부호-<이름>이름(명사)/<그림>그림(형용사)/<움직>움직(동사)/<어찌>어찌(부사)/<대어>대어(대명사)/<름>름(수사)/<스랑>스랑(감탄사)/<트>트(조사)/<애소>애소(조사)/<이름>이름(명사)/<속>속(명사)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

제주 마을과 골목의 가치를 나눈다

아카이브 작업 랩왓 '... 제주마을책' 전시

제주의 마을과 골목의 가치를 찾아 내고 기록한 작업이 한자리에 펼쳐지고 있다. 2013년부터 지역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해온 지역 활동가 그룹 랩왓(Lab.왓)이 제주시 서광로 키피인더에서 열고 있는 '함께 만드는 제주마을책(archive library)' 전시다.

이번 행사는 랩왓이 수집하고 제작해온 제주 자료를 모아놓은 '제주 책장', 방문자들이 직접 좋아하는 마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공유할 것으로써 기대된다"고 했다.

랩왓 인스타그램(@spacewhat_jeju) 등 참고. 전시는 12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전선희기자

물방울 떨어지는 치유의 미술관으로

김창열미술관 전시 연계 소장품 활용 명상관 운영

곳자왈을 품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마을에 들어선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에 고요한 휴식 공간이 생겼다. 소장품 기획전 '물방울, 고요한 울림'과 연계해 명상관을 운영한다.

지난 19일 막이 올라 2020년 2월 23일까지 계속되는 소장품 전시는 물

방울 시리지가 탄생하기 전 초기의 '회귀(回歸)' 연작에 주목했다. 목향 가득한 천자문 바탕 위에 생기 넘치는 물방울을 엮으며 김 작가의 작품 세계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기간 미술관 3전시실에서는 '나를 찾아서, 치유의 물방울'이란 제목으로 명상관을 가동한다. '유니크 명상'은 매일 5회 김창열 작가의 대표작을 곳자왈 원시 숲에 퍼지는 자연의 소리를 곁들여 감상하는 프

로그램이다. 1회당 10명씩 참여 가능하다.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치유명상인 '물방울 명상'도 있다. 물방울 작품과 물소리를 통해 몸과 마음이 쌓였던 피로를 씻어낼 수 있도록 관람객을 이끈다.

이달 22~23일 오후 2시에는 명상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명상강의를 듣고 유니크 명상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김창열미술관 홈페이지(http://kimtschang-yeul.jeju.go.kr)를 이용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문의 064)710-4145.

전선희기자



김창열의 석판화 '회귀' (1992).

문화가 짝지

탐목서연회 여섯번째 전시

탐목서연회(회장 양승필) 여섯번째 정기전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KBS제주방송총국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한편 양승필 서예가의 지도를 받고 있는 탐목서연회의 회원들은 이번 전시, 예서, 행초서, 현대서예 등으로 써내려간 50여점을 선보인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해인 만큼 선인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작품 등을 준비했다. 전시장 한 칸에는 영상으로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예 체험 부스도 마련한다. 개막 행사는 첫날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제주 책방 38곳 지도 제작

사회적기업인 (주)제주착한여행(대표 허순영)이 제주 곳곳에 있는 책방 정보를 한데 모은 '제주책방올레' 지도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제주책방올레 지도에는 그림책방 노란우산, 달리책방, 무명서점 등 9개 책방의 연락처, 주소, 책방 소개 등 상세 안내정보를 비롯 38개 제주 책방의 연락처와 위치 정보를 담았다. 책방 별 특징, 주제를 표시하여 여행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지도는 제주착한여행 홈페이지(www.jejugoodtravel.com) 등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제주도서관 인형극 공연

제주도서관(관장 김경희)은 11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인형극 '제주를 품은 거대 여신 설문대 할망'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극단 '그녀들의 AM'을 초청해 11월 27일과 12월 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커다란 탈 인형과 작은 인형들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제주성을 만든 설문대할망의 거대함과 자애로움을 그렸다. 6세 이상 관람가. 개인은 도서관 홈페이지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이용하면 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는 전화(717-6424)로 접수하면 된다.

'비밀의 바람숲' 중국 계약

곳자왈 소재 3D 애니메이션 '비밀의 바람숲'이 최근 중국 국제 애니메이션 콘텐트 페스티벌에서 캐릭터 관련 제조업체인 세종과기유한공사와 IP(지적재산권)활용 계약을 체결했다.

제주의 ㈜위뉴스가 제작해 2020년 국내 지상파로 방영될 이 작품은 지난 4월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특화 소재콘텐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해외 시연 행사를 지원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번 계약이 제주 콘텐트 IP의 국내 홍보만이 아니라 중국 등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못말리는 제주직항전세기

예약폭발
마감임박!

꽃보다 청춘! 제주직항 3박 5일

라오스 비엔티안/방비엔

12/11수 단하루

관광패키지 **999,000원** ~
골프 54홀 **1,290,000원** ~



★전신맛사지 2시간 ★버라이어티 탐낭동굴
★카약 래프팅 ★블루리군

눈이 부시는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제주직항 마카오 전세기

취향별로
선택하는
여행상품
Set

1. 주해/마카오 4일
799,000원(월,수 출발)
★어은천포함 ★베네시안자유

2. 마카오/주해/심천 5일
899,000원(금,일 출발)
★어은천포함 ★베네시안자유

3. 마카오/단하산 5일
950,000원(금,일 출발)

브루나이공화국 3박 5일

제주직항 1인

12/21토
12/25수
1,590,000원

대만 3박 4일

출발일: 여행사 문의 (팀별도)

699,000원~

말레이시아/싱가폴/말라카 쿠알리룸프/말라카/켄팅

매주 2회출발 (화,목) **999,000원** ~
매주 2회출발 (화,목) **799,000원** ~

하노이/하롱베이/닌빈(짱안)

3박 5일 제주직항으로

떠나는 환상의 여행

12/28토 2/19수

“황금연휴특가”

제주직항
선착순 **899,000원**

★특식3회(파라다이스뷔페, 씨푸드, 삼겹살 무제한)
★전신맛사지 1시간(팀별도), 베트남 전통노모자 증정, 스트리카 포함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일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술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가감-선착순 ★불포함: 가이드 & 기사 팀/인비행, 부가세 불포함